

하나님과 친밀감을 누리십시오

성경 출애굽기 34:27-35

신 67 쉼대 대화

일어날 때 아침에 이렇게 인사해 보세요.

집에 있을 때 식사 중에 말씀으로 격려해 주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는 하루 되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는 가정이 되도록 해요.

길을 갈 때 길을 갈 때 말씀을 적용해 주세요.

누워 있을 때 잠자리에서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찬양

1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은혜의 찬양 282장)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지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후렴]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2 빈 들에 마른 풀 같이(찬송가 183장)

- 1 빈 들에 마른 풀 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 2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 3 철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 4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에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후렴]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말씀 읽기 출애굽기 34:27-35

- 27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 28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사십 일 사십 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 29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 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타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 30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 31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 32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 33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 34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 35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본문 배경

이스라엘 백성의 우상숭배로 인해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이었던 첫 번째 십계명 돌판이 깨어지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깨우쳐, 그들을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우고자 행한 일이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이 파기되었다는 사실을 선언하는 행위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죄악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의 약속과 은혜를 베푸셔야 할 의무가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모세를 불러 이스라엘 백성과의 약속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깨뜨린 돌판과 같은 돌판 두 개를 준비하게 하셨으며, 첫 돌판의 내용과 동일한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허락해 주십니다. 이는 하나님이 모세와 처음 맺으신 언약의 모든 내용이 여전히 유효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세우신 약속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불변하시는 하나님'이라 고백합니다. 불변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세우신 약속의 모든 내용은 불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야 합니다.

말씀 관찰

1 하나님은 모세에게 무엇을 하라고 시키셨습니까?(27-28절)

답 하나님의 말들을 기록하라고 하셨습니다.

해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십계명을 돌판에 기록합니다. 이것은 당시 가장 오래 기록을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기록의 목적은 지금 이 계명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대대손손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인지 알고 지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야 할 곳은 돌판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마음에 새긴다는 것은 계명에 순종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못 지키는 게 아닙니다. 알지만 따르지 않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계명을 마음에 새기는 사람은 계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기록하면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고, 그 능력은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2 모세가 산에서 내려올 때 그의 얼굴은 어땠습니까?(29-30절)

답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서 사람들이 두려워했습니다.

해설 하나님과 대화를 나눈 후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습니다. 이것은 광채로 빛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간 사람이 얻게 될 영광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심으로써 금송아지 숭배 사건 이후 모세가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임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백성들은 모세의 얼굴을 볼 수 없었습니다. 얼굴의 광채로 눈이 부셨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은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모세의 얼굴에 나는 광채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처럼 이들의 마음을 두렵게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사람은 얼굴에 걱정과 수심이 사라집니다(삼상 1:18).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그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기에 얼굴에서 광채가 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지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고 고백합니다(시 73:28).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우리는 그분의 보호를 받고,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게 됩니다.

말씀 적용

1 십계명 중 지키기 어렵다고 생각되는 계명 한두 가지를 나누고 왜 지키기 어려운지 가족과 나눠 보세요.

2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 내가 끊어야 하는 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가족과 나눠 보세요.

말씀 암송

7-2 풀은마르고

이사야 40장 8절

작곡 조미진

Chords: Eb, Cm7, Fm7, AbM9/Bb, Ab/Bb, Gm7, Cm7, Fm7, Ab/Bb, Eb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영원히 서리라 하라 이사야 사십장 팔절아멘



가정에배 기도문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삼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 끊어야 할 죄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